

비행 하위문화이론에 나타난 빈곤과 범죄의 사회학적 고찰*

김영제, 김관석**

본 연구는 지역 사회 빈곤과 범죄의 관련성을 연구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입장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사회 계층과 범죄 간의 관계를 범죄 발생 및 범죄 통제의 정도, 그리고 법의식과 사회 계층적 갈등의 측면에서 빈곤과 범죄의 관계성을 비행 하위문화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비행 하위문화의 관점은 하위 계층은 중류 계층이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 중류 계층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노력이 좌절 될 때마다 사회에 반항심을 갖게 되고 합법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좌절되면 중류 계층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질서에 반항심을 갖게 되고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정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빈곤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볼 때 범죄 연구에 있어서 사회 환경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다학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복지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비행하위문화이론, 빈곤, 빈곤층, 범죄, 경제범죄

1. 서론

빈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과 동일 사회내의 타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인 상대적 빈곤,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주관적 빈곤이 그것이다. 즉, 빈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데, 빈곤으로 인한 각종 관습적 기회와 수단의 제한, 범죄적 비행하위문화의 접촉, 상대적 빈곤과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범죄를 조장한다는 많은 이론들이 있다. Albert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이 그 이론들 중 하나이다.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지역사회의 빈곤이 비행성을 내용으로 하는 비행하위문화를 형성하고, 박탈감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새로운 적응을 모색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행하위문화이론에서는 사회경제적 빈곤층의 사람들이 범죄적 행동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B00024).

** 교신저자.

을 옹호하는 특성이 있는 하위문화에 의해 사회화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여기게 된 것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았다. 이에 빈곤층의 사람들은 상류층이 되려는 목표를 갖지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 부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에서 불안감과 좌절을 느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심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범죄 행위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범죄통계를 가진 경험적 연구에서도 여러 종류의 범죄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한 결과 범죄자의 대다수가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빈곤가정일수록 하위문화와 쉽게 접촉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빈곤과 범죄가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빈곤이 범죄의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비행문화를 가진 빈곤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회규범과 법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회적 지원을 통해 빈곤층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과 범죄가 유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빈곤층의 경제적 안정은 범죄 발생의 감소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일부 계층의 비행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문화가 지배한 사회체제하에서 동일한 적용의 문제, 즉 지위욕구불만을 갖고 있는 하류 계층의 청소년 중에서 왜 어떤 청소년은 집단적인 비행에 참가하고 어떤 청소년은 참가하지 않는가라는 경험적 사실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주장으로 부의 집중화가 아닌 빈곤의 집중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빈곤의 집중화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빈곤의 집중화는 경제적 빈곤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경제적 빈곤이 범죄성의 요인이 된다는 주장은 대체로 두 가지 논거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수형자를 비롯한 범죄자 및 비행자 집단 중에서 빈곤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논거를 기초로 하여 범죄학자들은 공식적인 통계를 이용하여 빈곤과 범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비행 하위문화이론이 주장한 청소년 범죄 집단의 생태학적, 계급적 분포 및 중간 계층 문화에 대한 논의는 논리의 편협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이론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 빈곤과 범죄의 관련성을 비행 하위문화이론에 근거하여 '지위 박탈', 차별적 기회', 그리고 '법 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계층과 범죄에 관한 이론적 접근

대부분의 범죄학적 이론들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범죄 행위 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아노미이론, 범죄사회해체이론, 긴장이론, 마르크스주의적 범죄학이론 등 몇몇 이론에서는 명시적으로 사회 계층과 범죄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특정 사회 계층이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비행 하위문화이론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사회적 좌절에 의하여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집단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Cohen은 사회 경제적 빈곤층의 사람들이 범죄적 행동을 옹호하는 특성이 있는 하위문화에 의해 사회화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여기게 된 것을 범죄 원인으로 보았다. 좌절에 대한 반응 형성으로 전통적 기준과 반대되는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가치에 쉽게 젖어들어 그들이 접하게 되는 불법적 기회의 성격에 따라 비행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하위 계층 청소년들이 비행 행위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비행 하위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왜 이러한 하위문화가 발생하고 지속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전통적 사회에서 지위는 의상, 행동, 학식 등에 있어 사회적 기준에 도달할 때 얻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의 대표적인 것이 중류 계층을 사회적 표준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교사를 비롯한 학교에서의 기대는 모든 계층의 청소년에게 부과되지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하위 계층의 청소년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하위 계층¹⁾ 청소년들은 중류 계층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언어나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함에 따라 지위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지위 좌절에 대한 반응으로 비행소년(delinquent boy)이 발생하며, 이들은 중류 계층의 가치에 반대되는 규범과 원칙들로 비행적 하위문화를 구성하는 주역으로 비행적 행동에 대한 자제심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그들의 성장 공간이 되는 이웃이나 사회 조직에 의해 범죄행위가 결정된다.

이러한 견해에는 하위 계층이 불법적 기회 구조에 더 많이 접촉함으로써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빈곤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빈곤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 사회적 연대, 사회적 통제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최인섭·기광도, 1997). 하위문화이론 중에서 하층 문화의 성격을 중산층의 지배 문화에 대한 반항 문화로 보고 이를 범죄 원인으로 지목하는 Cohen의 이론을 비행 하위문화이론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의 특색으로는 총 3가지가 있다. 첫째, 종속적 문화를 들 수 있다. Cohen에 의하면 미국 사회는 중산층 문화가 먼저 형성되고 이러한 중산층 문화에 참여하지 못한 계층이 중산층 문화의 문화적 목표를 지향하며 종속적인 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둘째, 집단적 부적응을 들 수 있다. 하층 청소년은 중산층이 되려는 문화적 목표를 가지나 그러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산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좌절되고 이러한 개인적 아노미 현상이 집단적으로 발전한 것이 비행 하위문화의 형성 원인이 된다. 셋째, 지배 문화의 거부를 들 수 있다. 중산층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하층 청소년들은 집단적 부적응에 의하여 더 이상 중산층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중산층의 지배 문화에 대해 거부하는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그들의 문화는 중산층 문화에 대한 반항 문화로서 비행 하위 문화라고 한다.

비행 하위문화의 특징으로는 비공리성, 악의성, 거부성, 단기 쾌락주의, 집단 자율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를 들 수 있다. 비공리성은 상대를 단순히 괴롭히거나 자기 집단에서 영웅적 지위를 얻으려는 목

1) 계층 구분은 OECD(1995)와 유경준·김대일(2002)의 방법대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50%~70%를 중하층(modest income class), 70%~150%를 중간층(middle income class), 150% 이상을 상류층(high income class)으로 구분하였으며, 본고에서의 하위 계층은 빈곤층과 중하층을 포함하여 계층화하였다.

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성향을 말하고, 악의성은 타인에게 폐를 끼치고 금기를 파괴하는 행위에서 쾌감을 얻는 성향을 말한다. 거부성은 지배 문화에서 제시된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반항성으로도 표현되며, 단기 쾌락주의는 무계획적으로 목적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집단 자원의 강조는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이 내적 단결심과 외적 적개심으로 무장되어 이들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거부하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하위 계층이 불법적 기회구조에 더 많이 접촉함으로써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빈곤²⁾이 개인의 사회화 과정, 사회적 연대, 사회적 통제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적 빈곤이 범죄성의 요인이 된다는 주장은 대체로 두 가지 논거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낙인찍히면 이후로는 거의 모든 경제적 투자나 지원이 중지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일종의 도심 속의 슬럼지역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수형자, 범죄자 및 비행 집단에서 빈곤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빈곤과 범죄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빈곤 가정일수록 비행 하위문화에 가까운 지역 사회 환경에 의해 범죄 친화적 성향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Cohen의 비행부차이론에 대한 논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와 빈곤이 높은 연관성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빈곤 외에도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만연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범죄율 또한 하류층의 범죄 못지않게 높다. Cohen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하류층의 청소년 범죄 발생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중산층 청소년 범죄는 10년 사이 10%나 급증하였다.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 중 중산층 가정 출신 비율이 1998년 29%에서 2004년 32.6%, 2006년 37.3%, 2008년 37.7%로 꾸준히 증가했다.³⁾ 이러한 중산층 청소년 범죄의 공통된 특징은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학교성적도 높은 학생들이 놀이삼아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이다. Cohen은 하류층 청소년 범죄의 발생 이유를 범죄에 대한 노출이 많은 빈곤 지역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과 경제적 궁핍에서 찾고 있지만, 최근의 청소년범죄는 '유희형 범죄'의 형태를 지닌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중산층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었고,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어 절제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맞벌이를 하는 부모 사이에서 자란 중산층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약해져 부모에 대한 일종의 반항 행위로서 비행을 저지른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부족으로 가정이 자정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TV나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 행위에의 반복적인 노출과 범죄에 대한

2) 여기서 빈곤이란 물질적 자원의 부족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 의료 혜택의 기회 및 지위의 상향 이동의 기회 등 각종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빈곤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취동기 등 심리학적 차원에서의 박탈과 문화적 박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3) <중산층 청소년 범죄 10년새 10% P 급증>, 중앙일보(2010-01-28)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중산층 청소년들은 하류층에 비해 전자 기기를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범죄에 대해 미화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마약이나 폭행 사건에 관계된 연예인이 금방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 범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산층 청소년들은 절제력과 비행에 대한 죄의식이 약해져 탈선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 행위가 하류 계층의 낮은 생활수준에서 기인한다는 Cohen의 이론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증가와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논리적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화이트칼라 범죄의 증가

화이트칼라 범죄란 사회에서 관리자나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일컫는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대개 경영인이나 사무직 종사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범죄를 빈민층의 일탈 행위로 설명하는 Cohen의 이론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Cohen은 하류층이 경제적 빈곤 때문에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화되므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지만, 뇌물 수수나 탈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계층은 충분한 부를 누리고 있으며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범죄 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공평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 계층을 범죄 행위의 주체로 한정짓는 Cohen의 이론은 계층과 범죄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상류층의 도덕적 해이

비행 하위문화이론을 형성하는 학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준법정신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법 태도를 지닌 반면, 하위 계층은 법을 불신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하류층의 이러한 부정적인 법 태도는 범죄에 대한 태도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 사회의 상류층이 저지르는 비리를 설명하지 못한다. 엄청난 학벌을 자랑하고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재벌총수나 고위 공직자들은 오히려 평범한 시민보다 더 낮은 준법정신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숨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연예인 성상납 의혹이나 주가 조작, 뇌물 수수 등의 굵직한 범죄의 주체는 바로 상류층이다. 따라서 하류 계층에 비해 중상류층이 상대적으로 투철한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따른다.

III. 빈곤화와 범죄 계층

1. 빈곤화

William Julius Wilson(2003)은 빈곤화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과정이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심에 거주하던 중산층이 갑자기 약화된 해당 거주 지역의 환경으로 인해 도시 외곽으로 벗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경제적인 기반까지 동시에 수반하고 이탈함으로써 도심의 경제적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더 많은 중산층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그만큼 도심의 경제적 기반은 급격한 붕괴 현상을 보이게 되며, 이로 인하여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취업의 기회나 일할 수 있는 여건, 환경 등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못살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Wilson은 도심으로의 빈곤화라고 불렀다. 급격한 도시화는 비행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심한 인구 이동, 주민의 이질성, 근린성의 해체와 연대 의식의 결핍, 사회적·윤리적 통제의 약화에 의한 해방감, 익명감, 가정이나 개인의 고립화와 무력화 및 선정적 자극이나 향락적 기회의 풍부와 빈민 지역의 조성 때문이다.

새로운 빈민 지역의 형성은 중산층의 도심 이탈 현상과 더불어 야기되며, 이는 새로운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아예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중산층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는 중하층의 경제적 여건을 가진 계층은 그만큼 담보 능력이나 보증 능력에 있어서 이전 사람들만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지역의 투자 위축과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일단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낙인되면 이후로는 거의 모든 경제적 투자나 지원이 중지되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일종의 도심 속의 슬럼 지역으로 변화한다. 결국 많은 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사법권의 범위에서 떨어져 있는 이들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게 되고, 이들의 활동이 다른 범죄자들에게 알려지고 학습되는 승수 작용을 하게 된다.

지역 사회 빈곤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계층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연령대의 학생들이다. 이들은 가난하고 빈곤하다는 사실을 일종의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며, 이와 같은 생각이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쉽게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든다(Child's Defense Fund, 1996:3). 지역 사회 수준에서 접근한 Sampson and Bartusch(1999)는 가난하고 불안정한 지역사회에 사는 주민들은 범죄에 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 사회의 사회 경제적 특징이 법과 범죄에 대한 태도와 신념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인 비행 하위문화를 가진 지역사회는 부정적인 법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범죄 행위를 유발하도록 하거나 범죄에 친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와 사회적 배제를 연구한 Elliott Currie(1998)에 의하면, 빈곤은 범죄와 사회적 배제가 증가하는 커다란 요인이며, 가난한 가정의 어른

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직장을 여러 개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가정에 머물 시간이 없게 되어 아이들의 양육에 소홀해지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도 사회에 형성된 경제적 기준이나 소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적 경로를 통하여 이익을 얻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정치 체제나 지역 공동체에 의존하는 것보다 선호되기 때문에 빈곤은 범죄를 낳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목하였다.

2. 범죄통계와 계층

경제적 빈곤이 범죄성의 요인이 된다는 주장은 대체로 두 가지 논거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수형자를 비롯한 범죄자 및 비행 집단 중에서 빈곤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며, 둘째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 가지 논거를 기초로 하여 범죄학자들은 공식적인 통계를 이용하여 빈곤과 범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Quetelet(1981)는 범죄와 빈곤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부와 빈곤 사이의 현격한 불평등은 감정을 자극하여 모든 종류의 범죄 유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였으며, Shaw and McKay()는 시카고 지역의 범죄 현상 연구를 통하여 중산층의 지역 이탈과 경제적 쇠퇴기를 맞은 지역에 범죄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Morris(1977)는 범죄는 비행 지역과 과밀 가정의 비율에 정비례하는 반면 중류 가정의 비율과는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에서 검증하였다. 그는 이 같은 검증사실은 통해 빈곤 지역과 범죄의 유관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암시하였다. Cloward and Ohlin()은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를 수용하나 구조적으로 합법적 기회와 수단이 없는 사람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며 그러한 사람들이 불법적 기회가 어떠한가에 따라 서로 상이한 하위문화에 접하게 되고, 그에 따라 비행 유형도 다르다고 주장하였다(김준호 외, 2003).

일반적으로 사회 계층과 범죄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범죄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한다. 하지만 공식 통계가 실제 범죄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숨은 범죄(hidden crime)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계점과 함께 사회 계층과 범죄와 관련해서는 형사 사법 기관에 의한 차별적 법 적용⁴⁾까지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범죄 통계 분석을 통한 범죄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은 우리 사회의 범죄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계층적 특성과 범죄 발생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해 볼 수 있다.

양극화로 표현되는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장단기적으로 범죄의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학자들은 경제침체로 빈곤층이 많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의한 강도 범죄가 증가한다고

4) 이에 대해 Robinson(1950)은 자기기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하류 계층에서 비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Show와 McKey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비행은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단지 하류 계층에 비행이 많은 것은 범규 자체가 중산 계층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산 계층보다는 하류 계층의 범죄자가 많이 적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도 소득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양극화가 범죄 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 중산층이었던 가계의 일부는 고소득층으로 올라가고, 상당수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여 절대빈곤과 상대적 빈곤률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범죄가 증가한다. 실제로 송태정·배민근·김기범(2005)은 우리나라 소득양극화의 심화정도에 따른 범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범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소득 10분위 배율 및 지니계수와 범죄 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해 본 결과, 비교적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표 1>에서 소득 10분위 배율 변화는 (상위 10% 소득/하위 10% 소득)의 변화로 이 값이 클수록 양극화가 심화됨을 의미하며, 지니계수 변화는 당해연도 지니계수-전년도 지니계수이고 범죄증가율은 형법범죄 발생건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 10분위 배율과 범죄 증가율의 상관관계는 1991년~2003년 0.233이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0.560으로 상승했다. 이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증가로 인하여 범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빈곤이 범죄 증가에 높은 관련성을 있음을 보여 준다. 소득양극화와 범죄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범죄와 소득양극화 지표간 상관관계

구 분	소득 10분위 배율 변화		지니계수 변화	
	1991~2003년	외환위기 이후	1991~2003년	외환위기 이후
범죄증가율	0.233	0.560	0.475	0.457

※ 자료: 통계청, 대검찰청.

실업과 범죄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다. 범죄 행위에 대한 경제적 모델들은 '지위 박탈', 차별적 기회, 그리고 '법 태도'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 자극동기(incentive)에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업과 범죄에 관계성을 주장한 Hyman(1980)은 실업이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실업으로 인해 사람들의 자부심과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종국에는 범죄행위를 낳게 된다고 한다. 이는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취업을 하는 자들은 동료들과 접촉하여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가능케 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IV. 비행 하위문화의 사회학적 의미

1. 지위 박탈과 비행 하위문화

코헨(1955)은 하위 계층으로 하여금 비행 문화를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은 목표 달성의

어려움이 비행 유도성 긴장으로 기존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통적 사회에서의 지위는 의상, 행동, 학식 등의 사회적 기준에 도달할 때 얻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기준의 대표적인 것이 중류 계층의 기준이며, 일반적인 청소년 들은 학교활동에서 중류 계층의 체면과 수용을 익혀 동료들로부터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나, 하위 계층의 청소년들은 중류 계층이 요구하는 가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언어나 사회적 기술을 얻지 못해 지위 박탈(status deprivation) 또는 지위 좌절(status frustration)을 겪게 되어 중국에는 비행 하위문화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Akers, 1996). 범죄 다발 지역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빈민촌에는 나름대로의 하위문화가 있고 이러한 하위문화의 기준은 전통적 기준과 반대되는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가치에 입각함으로써 하위 계층 소년들이 쉽게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점은 범죄에 관한 빈곤의 직접적 효과 외에 특정 범죄에 있어서 범죄 행위에 대한 빈곤의 간접적인 효과를 추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비행 부차문화를 가진 빈곤한 지역 사회 거주민들이 공식적인 사회 규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비행 하위문화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

Cohen의 이론에 따르면 하위 계층 청소년들이 통상적으로 지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학교이며 이곳에서의 경험은 비행을 초래하는 실패와 긴장으로 가득 한 곳이다. Cohen은 하위 계층⁵⁾으로 하여금 비행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긴장의 구조적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비행 하위문화가 하위 계층 소년들이 비행 행위에 연루되는 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전개한 지위 박탈과 비행 하위문화의 연계는 목표 달성의 어려움이 비행 유도성 긴장으로 이어져 기존 사회에서 안정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데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중류 계층의 부모들에 의해 후원되고 있는 아동들은 좋은 태도, 방정한 품행, 온건한 태도와 행위, 성적 향상에 대한 열의, 학습, 학교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같은 것들을 인정받고 지위를 취득하는 반면에 하위 계층의 청소년들, 특히 소년들의 경우에는 중류 계층이 요구하는 가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언어나 사회적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위 박탈(status deprivation)로부터 지위 좌절(status frustration)을 겪게 되며, 중국에는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사회는 중산층 문화가 먼저 형성되고 이러한 중산층 문화에 참여하지 못한 계층이 중산층 문화의 문화적 목표를 지향하며 종속적인 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하층 청소년들은 중산층이 되려는 문화적 목표를 지나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산층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좌절되고 이러한 개인적 아노미 현상이 집단적으로 발전한 것이 비행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신양균 외 2004).

2. 차별 기회와 비행 하위문화

5) Jennifer Dixon(1993)은 하위 계층의 사람들의 특성을 ① 감정적 정서적 억압된 모습, ② 동기 부여가 어렵고 목표를 쉽게 포기, ③ 현실 이익에 급급해 하는 경향 등이 있다고 하였다(Jennifer Dixon 1993:3).

하위 계층은 적법한 사회적 기회를 받지 못하여 자동적으로 불법적 기회에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적으로 빈곤은 물질적 자원의 부족만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교육의 기회, 의료 혜택의 기회 및 지위의 상향 이동의 기회 등 각종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차별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는 기회의 접근 가능성에 적법 또는 불법 기회 구조로 설명될 수 있으며, 불법적 기회에 따라 불법 행위를 수행한다. 또한 개인의 성취동기, 포부 수준 및 자아실현 등의 심리학적 차원에서의 박탈과 문화적 박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Elliott Currie(1988)은 쉽게 말해 가난한 계층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쉽 없이 일을 해야 하므로, 가정에 소홀히 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로 배제되어 간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은 사회에서 형성된 경제적 소비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차별을 받게 되고 중국에는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비행하위문화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3. 사회 통제 기능과 법 태도

지역 사회 빈곤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Cohen의 비행 하위문화이론은 빈곤한 지역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 통제 기능과 비우호적 법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빈곤이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빈곤이 부정적인 법 태도를 매개하여 범죄 행위에 이르게 되는 경로 과정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들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사람들은 사회 규범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기준으로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법이라는 사회 규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법을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법 태도는 개인적 수준에서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Vogel & Meeker, 2001). 예컨대,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이 사법 기관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고용 상태 역시 사회 경제적 요인을 구성하는 중요한 변수로 그 효과가 실험되었는데, 실업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부정적인 법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직업 수준에서도 전문가 집단과 관리자 집단은 노동자 집단에 비하여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aukinen & Sandra, 1999).

빈곤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 통제 기능으로 인하여 법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강할수록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지역 주민들 간의 결속력이 낮은 지역인 경우에는 급격한 사회적 해체 현상으로 인해 범죄나 비행 등의 부작용을 겪는다. 지역 사회나 특정 지역의 구성원 간에 결속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바로 구성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상실됨을 의

미한다. 지역 주민들 상호 간에 반목이 심하고 서로 불신하며,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그만큼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한번 낮아지기 시작한 주민들 간의 결속력과 통제력은 바로 범죄나 비행의 증가와 직결되며, 이러한 범죄나 비행의 증가현상은 또 다른 통제력의 약화를 불러와 일종의 순환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경제적 빈곤층의 사람들이 범죄적 행동을 옹호하는 특성이 있는 하위문화에 의해 사회화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여기게 되며 범죄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기능이 상실된 비행 하위문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A. Cohen의 비행 하위문화이론은 중산층의 비행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문화가 지배한 사회 체제 하에서 동일한 적용의 문제, 즉 지위 욕구 불만을 갖고 있는 하류 계층의 청소년 중에서 왜 어떤 청소년은 집단적인 비행에 참가하고 어떤 청소년은 참가하지 않는가라는 경험적 사실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경제적 빈곤이 범죄성의 요인이 된다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범죄자 및 범죄자 집단 중에서 빈곤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의 절대 다수가 하류 계층이라는 사실은 빈곤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주장의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될 수 없다. 요컨대 빈곤이 범죄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Cohen의 비행부차이론은 두 요소의 관련성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피력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빈곤을 낙인찍는 근본 이유에 대한 현실적인 관찰을 간과한 한계점을 지닌다.

Cohen의 비행 하위문화이론은 지역사회 빈곤이 빈곤 문화 특히 비행 하위문화를 형성하여 범죄의 요인이 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를 사회 과학도의 관점으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관찰하면 이 이론의 한계점을 체감할 수 있다. Cohen의 비행 하위문화이론은 비행에 의한 범죄의 문제를 거시적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범죄 대책 또한 개인의 재사회화보다는 거시적인 예방 대책을 주장하며 사회 구조적인 해결책을 강조하였다. 물론 범죄 발생에 있어 구조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현재 범죄 학계에서는 범죄 발생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하기 보다는 사회 구조의 문제에 있다는 주장의 이론들이 대세이다. 이렇듯 구조적 측면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적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빈곤층이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사회 구조상의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빈곤층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만 보아도 범죄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Cohen의 비행 하위문화이론은 너무 사회 구조적인 해결에만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무조건적인 사회 구조적 해결보다는 그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인의 재사회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빈곤은 부의 집중화와 정부의 보호 아닌 차별, 구조적인 특정한 계층에 대한 용인과 같

은 요인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빈곤이 아니라 위와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만 마침내 빈곤과 범죄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처럼 빈곤과 범죄의 관계는 단순히 사회·경제적 측면에 의해 과생된 비행 하위문화로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범죄가 발생할 때 그 이유를 상위 계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그에 따른 연대 의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연구한 것은 빈곤과 범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곤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볼 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 및 환경을 재정립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과 더불어 빈곤과 범죄의 사회 환경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병로. 1998.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폭력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개발원.
- 경찰청. 2001-2007. 경찰백서.
- 김보환. 2004. 범죄생물학. 동국대학교출판부.
- 김준호 외. 2003.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대검찰청. 2002-2006. 범죄백서.
- 박현수·정혜원. 2010.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 비행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한국청소년 연구. 21(2): 5-34.
- 송태정·배민근·김기범. 2005.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LG경제연구원.
- 송영흠. 2010.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태중. 2005.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범죄론 및 형사사법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양균 외. 2004. 형사정책. 서울: 법무사.
- 유경준·김대일. 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이성식. 1986.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하위문화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호. 1999. 형사정책. 박문각.
- 조은·김영지·김희진. 2000. 저소득층 청소년문화의 실태와 문화적 권리신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차용석. 1976. 소년비행의 부차문화에 관한 연구. 경부대학교 법정대학 법대논집. 9: 1-44.
- 최영인·염건령. 2005. 범죄사회해체이론과 긴자이론. 백산출판사.
- 최인섭·기광도. 1997. 사회계층과 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기광도. 1997. 사회계층과 범죄발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통계청. 2001-2007.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필코. 1998. 하위문화 갈등과 노동계급 공동체 사회. 이동연(편역). 하위문화는 저항 하는가. 문화과학사.
- Box, S. 1983. *Power, Crime and Mystification*. London and New York: Travistock Publications.
- Children's Defense Fund. 1996.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Washington D. C.
- Cohen, A. K. 1955. *Delinquent Boys*. New York: Free Press.
- Cohen, A. K., Alfred R. Lindesmith, and Karl F. Schuessler, eds. 1956. *The Sutherland Papers*.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Cohen, Lawrence E. and Marcus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524.
- Currie, E. 1998. *Crime and Market Society: Lessons from the United States*. In P. Walton & J. Young. ed. *The New Criminology Revisited*. London: Macmillan.
- Jennifer Dixon. 1993. *Thousands of Infants Left in Hospital in '91'*. *Boston Globe*. 9 November.
- Hyman, H. 1980. The Effects of Unemployment: A Neglected Problem in Social Research", in R. K. Merton, J. S. Coleman, and P. H. Rossi. e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ocial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 Kaukinen, C. & C. Sandra. 1999. Public Perceptions of the Courts: An Examination of Attitudes toward the Treatment of Victims and Accused.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1(3): 365-384.
- Robinson, W. S. 1950. Ecological Correlations and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 351-357.
- Ronald L. Akers. 1996.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and Evaluation*. 2nd Ed. Roxbury Publishing Company.

金英濟: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정책과 지역개발 등이며, “도시재생을 위한 안전시스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깨진 유리창 이론의 실증적 분석”, “강원 혁신도시건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와 지역혁신”, “세계빈곤의 현황과 과제” 등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kyj9989@yonsei.ac.kr).

金判錫: 미국 The American University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교수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 및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혁신, 인사조직, 공공 거버넌스 비교연구 등이며, 현재 유엔행정전문가위원회(UN/CEPA)의 부위원장과 아시아행정학회(AAPA)의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7월부터 세계행정학회(IAS) 회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고 있

다. 국문저서(공저)로는 새인사행정론, 조직행태의 이해 등이 있으며, 영문저서로는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그리고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Governance in ASEAN Member Countries and Korea 등이 있다 (pankim@yonsei.ac.kr).

투 고 일: 2011년 05월 17일

수 정 일: 2011년 0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1년 06월 07일

The Sociological Research of Poverty and Crime in the Delinquent Subculture Theory

Young Je Kim, Pan Suk Kim

This study discusses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classes and crime within a community in terms of crime occurrence and its control from the socio-economic aspec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crime with a focus on the delinquent subculture theory in terms of legal consciousness and class conflict. According to the theory, the lower-class members try to achieve success legitimately in a society where the middle class values are dominant, but they become frustrated and express aggression against the middle class norms which have caused them frustration. Furthermore, they even commit crimes to achieve their desired goals. In that, the statistics support the delinquent subculture theory which Cohen argued. Ba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poverty and crime, this study stresses multi-disciplinary discussion using comprehensive approaches to socio-environmental factors in crime studies, social welfare, and effective social safety nets to reduce poverty.

Key words: delinquent subculture theory, poverty, the poor strata, crime, economic crimes